

무풍십승지문화센터 개소

무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화합·발전 기대

무주군은 27일 무풍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공동체 시설이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무 풍십승지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무주군 무풍면 무풍십승지문화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운정훈 도의원 등이 참석하고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무풍면 농촌중심 지활성화사업의 중심에서 적극 활용한 무주군 청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조영자 팀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 김우석 과장과 한강건설 박문규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2층 354㎡ 규모로 건축된 무풍십승지문화센터는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을 갖췄으며, 주민들이 함께 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활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중심지의 기초생활 확충, 지역경관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무주군은 27일 무풍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공동체 시설이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무풍십승지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창출하고 더불어 주민들과의 속속 가능한 교류활동으로 마을과 상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주민위원회를 포함한 무주군 및 무풍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무풍면

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될 십승지문화센터 개관을 축하드린다”며 “지역 내 다양한 연령층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활발하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지역화합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내년도 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 방문 사업 타당성 설명·협력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회단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간접을에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우원식 예산 결산특별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만나 국회 소관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지역 현안사업 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

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인 지역권 친환경 신립고원 조성(2,627억 원)사업이 현재 조성 중인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과 진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202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내년도 예산 최종 확정시까지 국비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성공적인 진안군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군은 다음달 7일까지 사과(후지)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업인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고 사과(후지계열)를 재배하며 저온저장고에 장기보관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접수 장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산업팀)으로 농업인 조직(작목반, 연구회 등) 대표가 견적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선도유지제(1-MCP) 처리는 사과 저온저장(후지계통)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때 약제 처리 후 하루 동안 밀폐하고 환기하는 방식이다. 과숙을 죽진하는 에틸렌 가스 발생을 억제하여 품질하락을 획기적으로 방지하며, 인

무주군,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모집

무주군은 다음달 7일까지 사과(후지)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업인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고 사과(후지계열)를 재배하며 저온저장고에 장기보관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접수 장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산업팀)으로 농업인 조직(작목반, 연구회 등) 대표가 견적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신선도 유지제 처리가 완료된 사과는 이를해 3~6월 출하하게 된다”며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흥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시장 가격이 좋을 때 출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과여성연구회·장수군산악회



생활 속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가 장수에서 열렸다.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 운영

장수자원봉사센터, 군청 광장서 성황리 열려… 29일 장계면서 진행

생활 속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가 장수에서 열렸다.

27일 장수군에 따르면 사)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사)장수군 자원봉사센터(육종순)가 주관하는 ‘2022년 생활 속 자원순환 함께 만들 어가요,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가 27일 군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시과여성연구회, 사랑의열매, 새마을운동장수군지부, 생활개선연합회, 여성체육회, 여성산악회, 장수군의용 소방대여성연합회, 대한적십자장수지구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장수군지부, 한국여성농업경영인협회, 한국부인회, NH농협장수군지부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집안에서 발생한 필요 없는 물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의 자원 순환 과정을 군

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과우치꾸미기, 차량용디퓨저만들기, 업사이클링 물풀나눔 및 탄소증립생활실천운동(환경생생과)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으며 27일 군청 광장을 시작으로 29일엔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미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올해 까지는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를 진행했으나, 내년부터는 군민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해 물건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하는 대안적 소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민에게 기부하는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의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익금은 연말에 장수군에 재단에 기부할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농촌 공방 체험마당 운영자 모집

장수군은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농촌공방 체험마당’을 함께할 운영자를 오는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

농촌공방 체험마당은 도자기, 염색, 숯공예 등 농촌의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농촌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팀이 참여하게 되며 축제 기간 중 축제행사장 내 체험마당에서 상시 운영된다.

운영자 자격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장 및 개인 운영자로 장수군청 1층 축제TF 사무실(063-350-2351)로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 까지 4일간 장수읍 읍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흥삼축제 대비 위생점검 실시

진안군은 3년만에 진행하는 2022 진안흥삼축제를 맞이하여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음식점, 카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신고사항 및 영업신고증 등 비치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관리 △가격표 부착 및 가격표에 따른 요금 청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위반 시황 적발 시, 군은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 청 위생팀은 축제 기간 중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머거리 부스를 지도·점검하며 식품안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